

##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 ‘남성 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홍윤\*

〈차  
례〉

1. 서론
2. ‘남성 만들기’를 동인으로 한 이상적 남성의 서사
3. 방관주의 형상에 함의된 젠더의 문제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방한림전〉에 나타난 방관주의 남장이 외부적 영향에 의한 ‘남자 만들기’의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추동된 방관주의 서사가 어떠한 젠더 문제를 함의하게 되는지 구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애초 방관주는 그녀가 남아 이길 원했던 부모의 은근한 욕망에 반응하여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부모를 상실한 후 그러한 젠더 정체성이 화석화됨으로써 남자로서의 이상적 삶의 완성에 몰두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에 방관주가 남성의 옷을 입고 입신양명과 가문의 부흥에 매진한 것도 것처럼 완전한 남성의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견 성공적인 그녀의 삶이었으나 그녀의 내면은 긴장과 불안,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 타고난 여성의 신체, 길항하는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완전한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없었던 그녀는 끝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방관주의 형상은 당대의 특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억압적인 젠더 규범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사의 비극을 형상화한

\*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Dr.Öğr.Üyesi, E-mail: hongyoun.cho@istanbul.edu.tr)

것으로서, 당대의 향유자들은 물론 현재의 우리에게도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란 결코 강요될 수 없고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방한림전, 남장, 젠더, 정체성, 억압

## 1. 서론

여성영웅소설군은 남성을 뛰어넘는 영웅적 여성 인물의 일대기를 그림으로써 90년대 이후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sup>1)</sup> 그러한 여성영웅소설의 하나로서 조선말 19세기경에 창작된 것으로 전해지는<sup>2)</sup> 〈방한림전〉 또한 여주인공이 남장을 통해 입신양명을 이루는 여성영웅소설 서사의 전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방관주가 동성인 영혜빙과 결연하고 양자 낙성을 통해 후대 계승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서사의 끝까지 남장을 유지한 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여타 여성영웅소설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에 〈방한림전〉은 여성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에 더하여 ‘여성-여성’의 결연이 서사의 핵을 이룬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 더해 소수자 담론까지를 아우르는 연구 대상으로 최근까지 주목 받고 있다.<sup>3)</sup>

- 
- 1) 전체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선행 연구의 대강은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37~41쪽을 참고.
- 2) 김미령,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양성성’과 가부장제」,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1367쪽.
- 3) 〈방한림전〉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로는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 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13~169쪽;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 의식 고찰: 〈방한림

<방한림전>의 선행 연구들을 일별하면 그 핵심 쟁점에 있어서 기존 여성영웅소설 연구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연구자들 사이에는 여성영웅소설을 두고 크게 상반된 두 가지 인식

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09~155쪽;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a, 253~277쪽;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知己관계 변모 의미」, 『관악어문연구』 1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쪽; 김혜정, 「〈방한림전〉 연구: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女결연’의 소설적 전통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115~137쪽;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121, 반교어문학회, 2006, 223~252쪽;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정병헌,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他者)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373~399쪽;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75~300쪽;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적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89~117쪽; 허순우, 「고전소설 〈방한림전〉의 교육적 함의」,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163~196쪽;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쪽;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知己)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 1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이유리,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 연구」, 『한국문학논총』 175, 한국문학회, 2017, 93~131쪽; 곽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한민족어문학』 1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159~197쪽; 김미령(2019), 앞의 논문, 1367~1394쪽; 이지하, 「육망주체로서의 방관주와 자기애의 미덕-〈방한림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모색」, 『국제어문』 182, 국제어문학회, 2019, 219~243쪽; 이우경(2020), 앞의 논문, 35~65쪽; 이종필, 「포스트 휴먼 담론을 통해 본 〈방한림전〉의 상상력」, 『우리문학연구』 66, 우리문학회, 2020, 103~127쪽;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姓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부장양문록〉·〈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 신동훈, 「단절과 고립의 시대, 고전문학에서 찾는 연결과 소통의 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5~62쪽; 강혜규, 「『방한림전』의 중첩된 갈등구조」,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157~183쪽; 이상일, 「문학교육 제재로서 〈방한림전〉의 가치와 한계-젠더 일탈과 동성혼 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45~77쪽 등이 있다.

이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여성이 남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남성에 앞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여성의식의 형성과 의식적 진보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sup>4)</sup> 다른 하나는 여성 영웅의 성취가 남성적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남성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여성을 그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sup>5)</sup>

〈방한림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해당 쟁점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방관주의 남장과 영혜빙과의 동성혼을 당대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내기도 하고,<sup>6)</sup> 같은 것에 대하여 그저 남성 지향의 콤플렉스가 발현된 양상으로 보기도 한다.<sup>7)</sup>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두 시각 중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림이 옳은가.

난망한 중에 재미있는 점은 상반된 두 방향의 해석이 동일한 전제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란 방관주가 남성으로 위장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방관주의 ‘남성 되기’가 당대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스스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어야만 한다. 반대로 방관주의 행보를 남성 콤플렉스의 발현으로 본다 해도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남성애의 지향이 있었다고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양자의 시각 모두 ‘방관주의 남성 되기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해당하는 논의로는 강진옥, 「이형경전 연구-부도(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73~121쪽; 양혜란(1998), 앞의 논문, 1998, 109~155쪽 등이 있다.

5) 이에 해당하는 논의로는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223~246쪽;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b, 305~310쪽; 임태웅, 「가부장제 강화의 측면에서 본 〈방한림전〉」, 『호원논총』 18, 고려대학교, 2010, 167~186쪽 등이 있다.

6) 차옥덕(1998), 앞의 논문, 169쪽.

7) 장시광(2001), 앞의 논문, 267~268쪽.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작품을 면밀히 살펴볼 때에는 이처럼 ‘공인된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게 된다. 방관주가 남장을 통해 공적 영역에 출사하고 영혜빙과의 동성 결연을 맺는 등 남성으로서의 위장된 삶을 고집하는 배경에, 스스로의 욕망이나 신념 보다 외부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초들이 작품 곳곳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한림전> 을 읽는 시각도 방관주의 ‘남성 되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녀에게 가해진 외부의 영향, 즉 ‘남성 만들기’의 맥락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바로 그러한 ‘남성 만들기’의 맥락 속에서 <방한림전> 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방관주로 하여금 위남(僞男)의 삶을 살도록 한 외부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작품 속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외부적 영향이 방관주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서사가 주조되었는지를 재구해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대의 젠더 문제에 대하여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본다.

## 2. ‘남성 만들기’를 동인으로 한 이상적 남성의 서사

이 장에서는 <방한림전> 을 읽는 핵심, 방관주의 남장이 지닌 의미 맥락을 가늠하기 위하여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sup>8)</sup> 이를 통해 방관주의 남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남성 되기’의 맥락인지, 외부적 영

8) 본고의 논의는 <방한림전> 의 이본에 해당하는 세 편의 한글 필사본, <방한림전>, <낙성전>, <쌍완기봉> 중 선본으로 알려진 <방한림전>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이상, 나손문고본 <방한림전> 을 저본 삼아 현대어로 번역된 이상구, 『방한림전』, 문학동네, 2017로부터 논의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도록 한다.

향에 의한 ‘남성 만들기’의 결과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체 서사에 형상화된 젠더 문제의 함의를 풀어내는 첫 단추로서 주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sup>9)</sup>

먼저 〈방한림전〉의 초반부 서술을 보면 주인공 방관주가 처음 남장을 하게 된 것이 오로지 그의 의지에 의한 것인 듯 서술되어 있다.

A. 방공 부부가 붉은 비단에 여러 가지 빛깔과 무늬를 넣어 만든 옷을 입히려 했으나, 방소저는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해 질푸른 적삼만 입으려 했다. 방공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딸의 뜻에 맞춰 소원대로 남자 옷을 입혔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까닭에 여공은 가르치지 않고 오직 『시경』과 『서경』만 가르쳤다.<sup>10)</sup>

위의 인용 A를 보면 어린 시절의 방관주는 화려한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질푸른 적삼만을 입으려 했다고 한다. 이를 방관주 스스로 여장을 거부하고 남장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보기 쉽다. 실제로 이 대목에 주목하여 방관주 스스로가 여성이 되기를 거부한 것, 즉 여성 되기를 강요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sup>11)</sup>

그러나 어린 방관주가 소탈하고 검소한 천성으로 인해 단순히 붉은 비단 옷을 거부하고 푸른 적삼을 입으려 했다는 것을, 곧바로 여성성의 거부에

9) 본고에서 논의될 여성성, 남성성 등의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적 성역할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의 개념이 사회적 성역할의 문제와 완전하게 분리될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 이에 생물학적 성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지 바란다.

10) 같은 책, 16쪽.

11) “옷은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자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은 곧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당시의 일반적 상황과는 달리 부모의 용인 하에(방관주의 경우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아에게 행해지던 가사와 예절 교육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던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은 채 성장한다(이유경(2020), 앞의 논문, 46쪽).”

의한 남자 옷 입기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다.<sup>12)</sup> 그러므로 논리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방관주의 남장이 그녀의 선택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B. 몸은 일월의 정기를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풍채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으며, 눈빛은 가을 물처럼 맑았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징조가 많아, 방공 부부는 비록 사내아이가 아님을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아이의 풍채와 자질을 신기하게 여기며 매우 기뻐했다. (중략)

관주가 바야흐로 말을 알아듣게 되었을 때 글자를 가르치니, 하나를 들으면 열 가지에 통하고 열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우쳤다. 방공 부부가 이런 관주를 애지중지해 아들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았다.<sup>13)</sup>

C. 이 무렵 방공 부부는 다시 방소저에게 길쌈과 바느질을 배우도록 권했으나, 방소저는 그런 일을 매우 싫어해서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부모 또한 딸의 재모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고 있던 터라 딸이 싫어하자 구태여 권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저에게 여자 옷이 아닌 남자 옷을 입히고 친척들에게도 아들이라고 했다.<sup>14)</sup>

위의 인용 B는 A의 앞에 서술된 내용이고, C는 A의 뒤에 서술된 내용이다. 먼저 B를 보면 방관주의 부모는 그녀가 태어난 당시 준수한 용모를 보고 아들이 아님을 안타까워한다. 또한 방관주가 말을 알아듣게 되자 글을 가르치면서 그녀에게 문재(文才)가 있음을 기꺼워하며 아들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12) 이와 같은 논리의 비약 문제에 대하여는 김경미(2018), 앞의 논문, 194쪽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3) 이상구(2017), 앞의 책, 16쪽.

14) 이상구(2017), 앞의 책, 17쪽.

당대 사대부가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글공부는 과거를 치르고 출사해야 할 남아의 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방관주의 부모는 그녀가 아들이 아님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녀에게 남아의 자질이라고 할 글공부의 재주가 있음을 발견하고서 그녀가 아들이 아닌 것을 더 이상 한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녀의 여성성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녀의 남성성에 기뻐하는 부모 아래 자라나며 그와 같은 부모의 반응을 거듭 경험하게 된 방관주, 자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글공부에 관심을 갖고 남성성의 발현을 지향하게 되지 않았을까. A에서 여성스러운 옷 입기를 싫어하고, C에서 길쌈과 바느질을 거부하는 방관주의 모습은, 것처럼 자신의 남성성 발현에 기꺼워하는 부모의 반응 경험을 누적한 결과일지 모른다.<sup>15)</sup>

그렇다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해가 가능하다. 방관주가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줄수록 부모는 더한 욕망을 그녀에게 투영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아이가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 소박한 옷을 입으려 하자, 그것을 남아의 자질로 여겨 여공은 가르치지 않고 『시경』과 『서경』을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 문면에서는 여공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로 ‘나이가 어린 탓’이라 말하지만, 어린 나이가 문제라면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표면에 내세운 이유와 달리 부모가 방관주에게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시킨 이유는 화려한 옷을 즐기지 않는 그녀에게서 남아의 자질을 발견하였던 탓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방관주가 바느질과 길쌈을 거부하자 부모는 강권하지 않고 곧 그녀

15) 성역할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학습이론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 행동 양식의 학습을 통해 성역할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때 초기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에 기댄 역할 학습이 중요하다 (장수지, 『문화와 성역할정체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비교연구』, 『사회 및 성격』 25(3), 한국심리학회, 2011, 31~45쪽).

에게 남복을 입히고 일가친척에게마저 그녀를 아들로 소개한다. 방관주가 딸이기보다는 아들이기를 원했던 부모들이, 부모의 반응을 의식한 그녀가 그에 응하여 남성성을 발현하자, ‘아이가 원한다.’라는 핑계로 그녀를 완전히 아들 삼기에 이르렀노라 볼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혹자는 이러한 부모의 결정에 대하여, 당대 현실 아래 딸로 태어난 그녀를 부모가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어린 시절에나마 그녀의 원대로 살게 해 준 것이며, 훗날 이를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되돌릴 요량이라면 친척들에게 그녀를 아들로 소개하였겠는가. 족벌 사회인 당대의 현실에서 사대부 가문의 일원이 지닌 가문내의 입지는 삶의 전반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대부에게 있어서 가문의 공인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상기하면, 방관주를 아들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일로 보기 어렵다. 방관주의 부모는 가문 사회에 그녀를 아들로 소개함으로써 방가의 아들로 공인받게 한 것이며, 그녀를 공인된 남성으로 살게 하고자 한 부모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sup>18)</sup>

16)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방관주를 남자로 길러낸 맥락은 김미령(2019), 앞의 논문, 1370~1373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17) “여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지난(至難)의 고통이 따라야 했던 조선조의 현실을 부모는 잘 알고 있었다. 오랜 기간 기다리다 얻은 ‘꽃 같은’ 아이였기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남성의 옷을 입혀 여성임을 숨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이것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정병현(2009), 앞의 논문, 378쪽).”

18)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의 어린 시절을 서술하는 해당 대목들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전형적 구성으로서 여성주인공의 남다름을 설화하는 대목으로 여기고 특별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것이라 하여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구절이라 해도 개별 작품의 서사를 통해 다른 의미 맥락을 형성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여성영웅소설들이 그와 같은 내용적 구성을 취한다 해도 완전히 동일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방한림전의 서술은 특히 방관주의 남성성 발현에 부모의 욕망이 반영되었을 가능

이처럼 방관주의 남성성이 부모의 욕망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로 그녀가 부모와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얻음으로써 수정될 여지를 지닌 것이었다.<sup>19)</sup>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그녀가 잃어낸 부모의 은근한 욕망은 ‘유지(遺志)’로 전환되고, 이로써 그녀의 남성성도 돌이킬 여지를 잃었던 것은 아닐까.

방관주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부모의 상을 치른 후, 그녀는 완전한 남자로서 행세하게 된다. 이러한 그녀에게 유모가 남자 행세를 그만둘 것을 진언하자 방관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남자로 행세한지 거의 십년이 되었으며, 그간 한 번도 남자 옷을 바꾸어 입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결심을 고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땅히 입신양명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후사를 빛낼 것이니, 어미는 이런 말로 다시는 날 괴롭히지 마라. 또한 나의 본색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길 바라노라.”<sup>20)</sup>

위를 보면, 방관주는 스스로의 남자 행세를 ‘부모의 명을 받드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남자 행세를 그만두고 여자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 오직 부모의 뜻대로 남성으로 살아가며 입신양명하고 후사를 빛내는 일, 완성된 남자의 삶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지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녀의 삶은 한 명의 남자로서 이상적인 삶을 완성하는 것에

---

성을 크게 보여준다.

19)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초기 성역할 정체성은 이후로 사회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 행동 양식을 개인이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된다(장수지(2011), 앞의 논문, 34쪽).

20) 이상구(2017), 앞의 책, 17~18쪽.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출사하여 나라에 공을 세우고 가문을 융성케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남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방관주의 행보가 이후로 <방한림전>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12살에 과거에 나아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제수되는 것, 형주 안찰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북방 오랑캐의 준동에 맞서 전쟁터에 나아가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 모두 당당한 한 명의 남자로서 입신양명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 더하여 영혜빙과 결연하고 우연히 발견한 낙성을 양자로 받아들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문을 융성케 한다는 남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연을 ‘동성애’로 바라봄으로써 <방한림전>이 조선 후기 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동성애를 소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동성애’라는 지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관주가 스스로의 정체를 ‘여성’으로 인식했고, 여성인 자신의 성애 대상으로서 여성을 원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과연 그러한가. 애초 혼인을 고민하면서 내비친 방관주의 내심은, 그것을 남자 행세를 지속하기 위한 위장 수단으로 여길 뿐임을 짐작케 한다.

‘이미 죽을 때까지 남자로 행세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나, 치자를 두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 동안 지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리라.’<sup>22)</sup>

서평후 영공이 딸 영혜빙과의 혼인을 청하자 방관주는 위와 같이 고민한다. 남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혼인을 하고 자식을 둘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관주에게

21) 김경미(2008), 앞의 논문, 189~216쪽.

22) 이상구(2017), 앞의 책, 27쪽.

있어서 혼인은 그가 남자로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방관주는 차마 배우자 될 사람을 속여 그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또 어리석은 배우자를 통해 본색이 누설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영공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다 처음 영혜빙을 마주한 순간 마음을 돌이켜 그녀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 마치 방관주가 영혜빙의 용모에 매료된 듯 반응하는 점에서 둘의 결연이 동성애적 끌림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소저가 그를 보고 놀라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를 숙이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데, 그 태도와 행동거지와 몸가짐이 진실로 요조숙녀다웠다. 또한 소저가 전혀 단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우 곱고 아름다웠는지라, 한림은 소저를 보자마자 뜻밖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중략) 한림은 소저의 아름다운 풍모를 경탄하고 애모하여 마음속으로 칭찬했다.

‘저렇듯 미모와 재주를 갖춘 여자는 만 년을 기다려도 다시 얻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숙녀가 나에게 오면 부부의 인륜이 끊어지고 일생이 문혀버리리라. 이를 생각하니 잔인하고 애석하구나.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영공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으리오?’<sup>23)</sup>

위를 보면 방관주는 ‘영공의 구혼을 다시 거절하기 어려워서’라고 구실 삼고 있으나, 실상은 영혜빙의 용모와 태도에 매료되어 그녀와의 결연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둘의 관계를 동성애적 관계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앞서 방관주가 부모의 은근한 욕망에 반응하여 남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그녀는 남자로서 이상적 삶의 완성을 삶의 목표로 두었으리라 보았다. 영혜빙과 결연할

23) 같은 책, 29쪽.

즈음에는 이미 당당한 남자로 출사하여 한림학사에 제수되는 등 목표하였던 남자로서의 삶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이 남자로 살아가는 것에 성취감과 자기효용감을 얻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는 이미 남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체화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녀가 스스로를 남자로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이후로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장부가 나라에 몸을 허락하였는데, 어찌 이녀자처럼 처자와 이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리오. 부디 몸에 병이나 탈이 없길 바라오.”<sup>24)</sup>

“대장부가 천하에 입신하여 요순처럼 어진 임금을 돕고 있는데, 어찌 대장이 되지 못하리오?”<sup>25)</sup>

위의 인용은 각각 방관주가 형주 안찰사로, 또한 북방 오랑캐의 준동을 평정기 위해 대원수가 되어 떠나면서 부인인 영혜빙과 작별 인사를 하며 건넨 말이다. 그녀의 진실한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영혜빙 앞에서, 진지하게 대장부 운운하는 방관주의 모습은, 이미 그녀가 남자로서의 삶에 깊이 젖어 들어 있음을 실감케 한다.<sup>26)</sup> 곧 방관주는 신체적으로 여성이면서도 그러한 면모를 감추고 남성으로서 살아가던 중에, 정신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관주가 남성으로서의 내면을 지녔기에 영혜빙의 용모에 매력을 느끼고 그녀와의 결연을 결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

---

24) 이상구(2017), 앞의 책, 42쪽.

25) 같은 책, 56쪽.

26) 이때의 그녀가 이미 남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은 신민철, 『방한립전 인물의 성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5~17쪽; 서신혜(2010), 앞의 논문, 279~280쪽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때 방관주는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취하고 있기에,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의 대상으로서 영혜빙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그처럼 남성의 정체성을 발현하여 영혜빙과 결연한 방관주는 그녀와 지기(知己)로서 해로할 것을 천명하지만, 실상 둘의 부부관계는 전형적인 당대 가부장제하의 부부관계를 답습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애초에 남성과의 결연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방관주가 여성의 몸을 숨긴 위장 남자라는 이유로 그녀와 결연한 영혜빙조차 실제의 부부관계에서는 그녀가 끔찍하게 여겼던 전형적 사대부가 안주인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세상 부부들의 영욕을 거부하기를 마치 초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로 여긴 것처럼 하여 수시로 말하기를,

“여자는 죄인이라 이미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의 규제를 받아야만 하니, 남자가 되지 못할진댄 인륜을 끊는 것이 옳으리라.”

하며 형제들이 부부의 연을 맺어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었다.<sup>27)</sup>

위에서 보듯 당대 세상의 부부관계를 원수처럼 여겼고, 남편의 규제를 받을 바에는 결연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영혜빙이었다. 이러한 영혜빙의 발언은 당대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억압을 신랄하게 꼬집은 것으로, 이 작품을 여성의식의 진보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담은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sup>28)</sup> 위와 같은 내용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개연성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적극적 체제 저항의 모습을 방관주와의 결연 이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방관주와 결

27) 이상구(2017), 앞의 책, 26쪽.

28) 장시광(2001), 앞의 논문, 271쪽; 김하라(2002), 앞의 논문, 229~233쪽; 박혜숙(2006), 앞의 논문, 181~182쪽; 서신혜(2010), 앞의 논문, 285~286쪽.

연 당시 영혜빙은 서로의 흥금을 터놓은 대화 중에 스스로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노라 선언하기도 한다.

“그대를 처음 볼 때 이미 분명히 알아보았던 터이니, 이제 그대와 평생을 함께 지낼지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겠나이다. 다만 그대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수염이 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들 몰라보겠소? 그 시절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려 하시나이까?”

한림이 처량하게 탄식하며 말했다.

“모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생각이기에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나, 소저의 일생을 생각하면 무안하기 그지없소. 이미 나와 지기가 되어 일생을 함께 마치고자 한다면 우리 두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어 서로의 호칭을 어지럽게 하지 맙시다.”

영소저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래서는 아니 되나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대의 본색이 자연히 드러나 우리 부모님께서 알게 되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부의 예를 차리면 될 뿐인데,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sup>29)</sup>

영혜빙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그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에 사죄하며, 방관주는 둘이 형제의 의를 맺자고 제안한다. 이에 영혜빙은 주변에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부의 예를 차려야 한다고 말하며, “평생을 함께 지낼지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세상 부부관계를 여성의 천형으로 여겼던 그녀가 외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부부관계에 종사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태도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방관주와의 부부관계가 세상의 다른 부부관계와 특별히 다르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남성의 신체’가 없다는 것 외에 여타 사대부가의 부부관계와 다른

29) 이상구(2017), 앞의 책, 37쪽.

점을 찾기 어렵고, 애초 영혜빙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던 이유는 남성의 신체에 대한 혐오 보다는 아내로서 남편에 종속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영혜빙의 모순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 그녀를 방관주의 남장 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짝으로서 맞추어진 존재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sup>30)</sup> 방관주의 남장 서사가 유지되도록 맞추어진 짝이기에, 여성이면서도 남성의 모습을 한 방관주의 특이성을 긍정할 수 있는 배우자가 설정되고, 이후로는 이상적인 남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방관주의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춘 이상적 아내의 역할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방관주의 남장, 방관주와 영혜빙의 위장된 부부관계가 서사의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낙성’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간신의 참소로 형주 안찰사라는 한직으로 물러났던 방관주는 그곳에서 별이 떨어진 자리에 놓여있는 사내아이 낙성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그를 하늘이 내린 인연으로 여겨 양자로 삼는다.

안찰사가 별이 떨어진 곳을 다시 바라보니 별의 광채는 없고 옥같이 곱게 생긴 아이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중략)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아이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세히 보니, 영웅다운 기상이 넘쳐흐르고 가슴에 ‘낙성’이라는 두 글자가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sup>31)</sup>

30) “여성영웅소설에서 결혼이란 젠더 규범의 위반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설정에는 적어도 결혼만은 이성애적 결합, 정상적인 이성 사이의 결합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따라서 〈방한림전〉에서의 동성결혼 설정은 이전 소설들과의 연관성 및 차별성 속에서 ‘결혼까지 시켜본다’는, 다시 말해 서사적 가능성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중략) 이 말은 방관주가 남장을 지속해 결혼까지 하는 설정을 염두에 두고서, 그에 어울리는 짝으로서 영혜빙을 설계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조현우(2016), 앞의 논문, 110~113쪽).”

31) 이상구(2017), 앞의 책, 44~45쪽.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대로, 사실 방관주가 형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낙성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 그를 참소했다는 간신과의 갈등도, 임지인 형주에서의 우여곡절도 그려지지 않는다.<sup>32)</sup> 결국 낙성을 양자로 들여 후사를 잇는 것도, 방관주가 가문을 다스려 번성케 하는 이상적인 남자의 삶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서사의 종장에서 도사가 등장하여 방관주의 죽음을 예견한 것도, 낙성이 과거에 급제하고 혼인하여 아들을 낳은 얼마 후의 일이다. 입신양명하고 가문을 부흥케 하려던 방관주의 고군분투가 낙성과 그 아들을 통한 후계의 완성을 통해 종결되고, 비로소 방관주의 이상적 남성 서사도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방관주는 부모의 기대와 욕망을 통해 남자로 만들어지고, 부모의 죽음 이후 그들의 뜻을 좇아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기 위해, 곧 남자로서의 이상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방한림전>의 서사 또한 이상적 남성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관주의 행로를 그려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 3. 방관주의 형상에 함의된 젠더의 문제

앞서의 논지를 이어가자면, 방관주의 남장과 성공적인 삶의 행보는 그녀의 신념에 의한 것도,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욕망에 반응하여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던 것이, 부모를 상실한 후 삶의 이정표로 기능하였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부모의 욕망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 이는 분명 당대 사회를 압도하였던 남아선호사상, 그 기저에 놓인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방관주의 서사는 스스로의 '남성 되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

32) 조현우(2016), 앞의 논문, 117쪽.

‘사회 → 부모’로 이어진 외부적 영향에 의한 ‘남성 만들기’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up>33)</sup> 곧 방관주는 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지닌 채로 성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젠더 역할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그렇다면 방관주는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실현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방관주가 당대의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이상적 남성상을 실현함으로써 가부장의 한 전범을 보여주었음은 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외부의 시선에 포착된 그녀가 여성의 몸을 지녔다는 점에서 완전한 가부장의 자리에 여성을 대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35)</sup> 그러함으로써 당대의 공고한 가부장 담론, 나아가 남성지배의 이데올로기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방한립전〉의 서사가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당대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 문제를 떠나, 작품에 그려진 방관주 개인의 형상을 돌아봄으로써 보다 미시적 차원의 젠더 문제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33) 혹자는 방관주가 남성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부모의 욕망을 반영하였던 것이라 해도, 결국 그녀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관주의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어린 방관주가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속적 암시를 받았다면, 그녀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이에 그녀가 남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단한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형성된 정체성에 따라 취해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4) 젠더는 개인의 정체성 구성의 핵심 요소로서, 젠더 정체성은 어떤 성별이 주어졌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자신을 어떤 젠더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차와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후천적·유동적 자아 인식을 의미한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335~349쪽).

35) 방관주가 스스로의 젠더 정체성을 남성으로 여겼다 해도, 진실이 밝혀진 후 외부의 시선에 노출된 그녀는 여성의 몸을 지닌 여성일 수밖에 없다. 위의 서술은 이와 주제로서의 그녀와 객체로서의 그녀가 지닌 성 정체성의 모순에 의한 역설적 상황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방관주에게 처음부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나고, 그러한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되고 싶은 자신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지없이 되어야 할 자신만 주어진 상황, 그 속에서 완전한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없었던 방관주는 길항하는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삶의 끝까지 고통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남자의 삶을 시작할 때, 영혜빙과의 결연을 결정하였을 때, 낙성의 혼처가 정해져 방관주를 가부장으로 하는 가문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점에, 즉 방관주의 남성 서사가 주요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그녀가 지닌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힐난하는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소저의 나이가 바야흐로 아홉 살이옵니다. ‘규방의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대문 밖을 나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오니, 바라건대 소저는 생각을 바꾸시어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그쳐 뒷일을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양친의 영혼도 평안하게 하소서.”<sup>36)</sup>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낭군의 혼사는 옥처럼 잘생긴 군자와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어찌 규방의 여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괴이한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sup>37)</sup>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초목금수라도 음양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떼땀하거늘, 상공과 부인은 스무 살이 넘었음에도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저버리고 계십니다. (중략) 바라건대 두 분 주인께서는 짐짓 좋은 피로서 훌륭한 군자를 얻어 황영의 자매처럼 자내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첩이 두 분의 실상

36) 이상구(2017), 앞의 책, 17쪽.

37) 같은 책, 30쪽.

을 누설하고 싶었으나 상공께서 하도 강고하시기에 발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어찌 제 마음이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어린 공자도 오래지 않아 부인을 얻게 될 터인데, 상공과 부인께서는 언제쯤이 되어야 인륜을 차리려 하십니까?”<sup>38)</sup>

위에서 보듯, 유모는 남성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방한림의 삶을 ‘우스운 말과 행동’, ‘괴이한 행동’,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라 칭하며, 방관주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주어진 성 역할로 회귀하기를 촉구한다. 이처럼 유모는 당대의 젠더 규범을 대변하는 목소리로서,<sup>39)</sup> 방관주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일탈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으로 자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40)</sup>

스스로 남성 되기를 선택했다기보다, 부모의 욕망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욕망에 작용한 당대의 남성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녀 자신도 모르게 남성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젠더 정체성에 충실하였을 터이지만, 세상은 그녀의 신체가 여성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괴이하며 비윤리적이라 비난한다. 어릴 적 잃어버린 부모의 뜻을 따라 완전한 남성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방관주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삶을 부정하는 당대의 젠더 규범은 그녀를 삶의 끝까지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을 것이다.<sup>41)</sup> 부모의 유지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38) 같은 책, 52쪽.

39) 조현우(2016), 앞의 논문, 120쪽.

40) 유모는 방관주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보좌하며 모든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는 방관주의 집 안에 은폐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방관주의 일탈을 비난하는 유모의 목소리는 곧 자기 마음 내밀한 곳에 은폐된 진실을 돌아보게 하는 방관주 내면의 목소리가 형상화 된 것일 수도 있겠다.

41) 작품 내에서 유모의 목소리 외에 방관주가 지닌 여성의 몸을 문제 삼는 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그녀의 내적 갈등은 스스로 여성의 몸을 지녔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방관주의 내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윤리적 강령이지만, 세상이 규정하는 젠더 규범도 벗어나서는 안 될 윤리이다. 남자로서의 삶을 완성해 갈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가고, 그럴수록 더욱 큰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윤리 사이에서 방관주는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혜빙과의 부부관계 또한 그와 같은 방관주의 내적 갈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영혜빙의 존재는 분명 방관주로 하여금 남성의 삶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 기반이었다. 그러나 방관주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인 영혜빙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자신이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혼인 직후 영혜빙에게 자신의 진실한 정체를 드러낸 방관주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생각이기에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나, 소저의 일생을 생각하면 무안하기 그지없소.”<sup>42)</sup>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받아준 영혜빙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방관주는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그녀 또한 위장된 삶을 살아야 함에 무안함을 느끼며 순수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와 같은 순간은 영혜빙과의 삶 속에서 거듭하여 찾아온다.

“부인이 나 같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열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랑의 본부인이 되고 봉황을 새긴 화관과 꽃신으로 아름다운 풍채를 돋우게 되었으니, 젊은 나이에 일찍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하례하나다.”

영소저가 화관을 기울이고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

42) 이상구(2017), 앞의 책, 37쪽.

“이 모든 것이 그대 은덕이옵니다. 그 성덕이 산처럼 높고 훌륭하거니와 여자가 남편의 은총을 입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일일진대, 어찌 그대는 도리어 아까워하시나이까?”

사랑이 크게 웃었으나, 한편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

방관주가 이부시랑겸 태학사에 제수되며 영혜빙 또한 봉작을 받게 되자, 그녀는 자신 같은 훌륭한 남편을 만난 덕이라며 부인에게 농담을 건넨다. 이에 즐거이 농담으로 응수하는 영혜빙의 ‘여자가 남편의 은총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에 방관주는 짐짓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다. 남성으로서의 성취를 얻어도 영혜빙과 대면하며 스스로가 온전한 남성이 아님을 자각하는 순간, 어떠한 성취도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방관주가 천자에게 금자(金字) 병풍을 진상한 후 어필(御筆) 서적과 황금 서진을 하사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임금께 얻은 것을 네게 전하노라.”

어사는 크게 기뻐하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책과 서진을 받아 들고 물러났다. 어사가 물러간 후 승상이 통천관을 쓰는데, 부인이 쌀쌀맞게 웃으면서 말했다.

“폐하께서 군자에게 상급하신 것을 아들과 그대는 나누어 가지되, 어찌하여 첩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나이까?”

승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부인에게 쓸모없는 것이기에 주지 않았을 뿐이요. 하나 지금 부인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하다 할 것이요. 그런데도 이렇듯 투정하시니 부인의 욕심이 지나치게 심하구려.”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어찌 유독 그대에게만 쓸모가 있겠소?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쾌활한 척하십니까?”

승상이 웃던 얼굴을 찡그리고 흥이 사그라들며 말했다.

“부인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들먹이지 마오. 지금 사람들은 나를 어엿한 관료

라 생각할지언정 그중에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소이다.”

부인이 가만히 웃기만 했다.<sup>43)</sup>

여기서도 방관주는 천자가 하사한 상을 아들에게 전하며 자신의 성취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영혜빙이 자신에게는 왜 나누어주지 않느냐 묻자, 방관주는 여자인 영혜빙에게 책과 서진은 불필요한 것이라 말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책과 서진이 여자인 영혜빙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 말하는 모습에서, 방관주가 스스로를 남성으로 여기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영혜빙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당신에게는 왜 쓸모가 있느냐?”하며 그녀가 결코 남성이 될 수 없음을 꼬집는다. 이로써 방관주는 천자에게 상찬을 받은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내 얼굴을 붉히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방관주는 당대의 사회로부터 부모로 이어진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고, 부모의 유지에 따라 이상적 남성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 자신이 당대의 젠더 규범을 이탈한 존재이며, 남성이고자 하여도 온전한 남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절망하며 내적 고통을 누적하고 있었다. 그러한 맥락이 그녀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아는 유모와, 그녀의 위장된 삶을 용인하여 준 영혜빙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 그녀의 내밀한 갈등과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방관주에게 삶이란 곧 천형이었을 것이다. 천관도사를 만나 그녀가 세상을 속임으로써 단명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뱉은 독백에도 그러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일개 아녀자로서 남자 행세를 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천벌이

---

43) 같은 책, 73~74쪽.

없겠는가? (중략)”

승상은 안석에 의지해 멀리 하늘 끝을 바라보면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sup>44)</sup>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세상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 언젠가 찾아올 천벌을 기다리며 삶의 성취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방관주의 생은 천길 벼랑 위에 걸린 외줄을 타듯 긴장과 불안으로 점철되었을 것이다. 서사적으로는 그가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을 천벌을 받은 결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와 같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 살며, 외적으로는 남성으로서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온 인생을 불태웠던 방관주였다. 이에 방관주의 단명은 그녀가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그의 정신과 육체가 마모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죽음 앞에 이른 방관주는 천자에게 자신의 위장된 삶을 고백한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뢰옵나이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 실상을 모두 아뢰옵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흠트렸기에 감히 필뚝의 주표를 보여드린 후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sup>45)</sup>

은폐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강상의 법도를 어긴 방관주는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결과는 천자의 용인(容忍)이었다. 살아생전 술하게 세운 공로에 더하여, 남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절개를 잃지 않았음을

---

44) 같은 책, 76쪽.

45) 같은 책, 81쪽.

주표로 증명한 방관주의 삶은 천자의 공인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작품 내적으로는 방관주가 그와 같이 기이한 일생을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천상의 죄를 인세에서’ 치른 것으로 이야기됨으로써, 인간 윤리의 위에 있는 천상의 도를 온전히 하기 위한 맥락으로 갈무리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었을 수 있다. 방관주가 남성을 가장하여 이룬 성취가 분명한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다. 본래 방관주의 위남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일 것이나, 죄의 당사자가 세상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인 것이다. 만약 방관주가 이후로도 세상에 남아 당대의 젠더 규범에 균열을 일으키는 표상으로 기능하였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가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방관주의 사례는 현재적 영향력이 없는 ‘특별한 예외’로 취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한림전〉의 결말이 지닌 의미맥락은 그러하거니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앞서 논한 바 방관주가 감내해야 했던 내적 고통이다. 여성의 신체로 태어나는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고,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에게 과도한 억압으로 작용하고 남성을 지배적 위치에 놓았던 당대의 젠더 규범이, 방관주의 부모로 하여금 왜곡된 욕망을 그녀에게 내비치게 하였고, 그녀로 하여금 남성으로 만들어져 고통과 불안 속에 일생을 소모토록 한 것이다. 왜곡된 젠더 규범이 낳은 왜곡된 인생, 그로 인한 불안과 고통, 당대의 억압적 젠더 규범이 초래한 왜곡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방한림전〉의 서사가 아닐까 한다.

혹자는 〈방한림전〉에 그려진 방관주의 형상은 매우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당대의 젠더 규범이 초래한 왜곡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당대의 조선 사회가 아니더라도 억압적 젠더 규범으로 인해 왜곡된 방관주의 삶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세 기독교 질서 아래에 있던 유럽 사회의 경우에도, 조선의 그것에 못지않은 억압적 젠더 규범이 작용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중세 유럽 사회에서 ‘남장성녀’이야기가 하나의 성자담 유형으로서 유행한 바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기독교 사회에서 남녀의 옷 바꾸어 입기는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sup>46)</sup>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사회에서 남장한 여성을 성녀로 받들고 찬양하는 성자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남장성녀 이야기의 서사는 대개 아버지에 의해 남자로 소개되어 수도원에 맡겨지게 된 여아가 평생 여성임을 숨긴 채로 수도 생활에 매진하다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수행 속에서 이른 죽음을 맞고 (이는 마치 방관주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를 불살랐던 맥락과 유사하다.) 죽음 이후에야 여성임이 밝혀져 성자로 추존되는 맥락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남장 성녀의 수는 4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sup>47)</sup>

중세 기독교는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성역할을 강조하며, 특유의 기독교적 젠더 체계를 강화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젠더 문법에 ‘완벽한 남성성’과 ‘부족한 여성성’이 함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남성적인 완전함을 얻기 위한 상징적 젠더 전환이 요구되었다.<sup>48)</sup> 그러한 상징적 젠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남성 만들기’가 당대 여성에게 왜곡된

46) 신명기 22장 5절: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의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최창모, 『남녀 의복 교환착용 금지(신명기 22:5)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1, 한국중동학회, 2000, 251~263쪽 참조).”

47) J. Anson, “The Female Transvestite in Early Monasticism: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Motif,” *Viator*, Vol. 5, 1974, pp.1-32.

48) 차용구, 「서양 중세의 남장여성(男裝女性)-Hildegund von Schöäu의 역사성 재검토-」, 『역사학연구』 37, 호남사학회, 2009, 147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남장성녀의 사례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49)</sup>

그처럼 억압적 젠더 규범이 한 여성의 삶을 왜곡하게 되는 것은 그 옛날 조선이나,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와 같이 먼 과거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억압적 젠더 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방관주와 같은 ‘남자 만들기’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무슬림 사회로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부모들은 그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딸들 중 한 명을 남자로 만든다. 그녀들은 3~4세의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다가, 남자 형제가 태어나는 순간 다시 여자로 돌아가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젠더 정체성은 되돌리기 어렵다. 아프간의 한 남장여성은 남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가 여성의 옷을 입기를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동안 여성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옷을 입고서 이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다고 한다.<sup>50)</sup> 그것은 그녀의 남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남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유하면서 남성으로서의 공고한 젠더 정체성을 형성한 결과이다.

이처럼 <방한림전>에 나타난 방관주의 형상은 그저 당대 조선의 특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억압적인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사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방한림전>은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누

49) <방한림전>이 19세기 말에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세 유럽의 남장성녀담으로 방한림의 남성 되기를 설명하기에는 시대적 간극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억압적 젠더 역할이 강요되는 모든 사회에서 방관주, 혹은 남장성녀들의 비극이 동일하게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0) <아프간의 딸들, 아들로 살아가는 이유>, 『세계는 지금』, KBS, 2012. 07. 14.-인  
터넷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ctnXyPh6fk>, 검색어: 아프가니스탄, 검색일시: 2021.10.08. 17:37

구에게도 강요되어서는 안 될 성역할, 그것을 규정하는 젠더 규범이 불가침의 공고한 틀로서 작용하는 위험성을 말이다. 그러한 젠더 규범 아래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떠한 긴장과 불안 속에 정신과 육체를 소모하게 되는지를, 〈방한림전〉은 방관주의 형상을 통해 당대의 향유자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지 모른다.

#### 4. 결론

본 연구는 〈방한림전〉에 나타난 남장의 맥락을 ‘남성 되기’가 아닌 ‘남자 만들기’의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추동된 방관주의 서사가 어떠한 젠더 문제를 함의하는 것인지 구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작품을 살펴본 결과 방관주의 남장이, 방관주가 남아이길 원했던 부모의 은근한 욕망에 그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며, 부모의 상실 후 남자로서의 이상적 삶을 완성하는 것을 부모의 유지로 인식한 결과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방관주가 남성의 옷을 입고 이른 나이에 출사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이루고, 영혜빙과의 결연, 낙성의 입양을 통해 가부장의 역할을 완성하는 것도 것처럼 완전한 남성의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성공적인 그녀의 삶도 그녀의 내면에서는 긴장과 불안, 고통의 연속이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 타고난 바의 여성의 신체, 이로 인해 완전한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없었던 그녀는 내면에서 길항하는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끝없는 갈등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방관주의 형상은 당대 조선의 특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

다. 억압적인 젠더 규범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 들어질 수 있는 인간사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방한림전〉은 고유의 젠더 정체성이란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규정하는 젠더 규범이 불가침의 절대 원리로 작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방관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 참고문헌

- 강진옥, 「이형경전 연구-부도(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73~121쪽.
- 장혜규, 「『방한림전』의 중첩된 갈등구조」,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157~183쪽.
- 곽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한민족어문학』 1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159~197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 김미령,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양성성’과 가부장제」,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1367~1394쪽.
-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121, 반교어문학회, 2006, 223~252쪽.
-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知己관계 변모 의미」, 『관악어문연구』 1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쪽.
- 김혜정, 「〈방한림전〉 연구: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女결연’의 소설적 전통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115~137쪽.
-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知己)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 1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75~300쪽.
- 신동훈, 「단절과 고립의 시대, 고전문학에서 찾는 연결과 소통의 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5~62쪽.
- 신민철, 「방한림전 인물의 성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9쪽.
-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 의식 고찰: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09~155쪽.
- 엄태웅, 「가부장제 강화의 측면에서 본 〈방한림전〉」, 『호원논총』 18, 고려대학교, 2010, 167~186쪽.

-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 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89~117쪽.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1~540쪽.
- 이상구, 『방한림전』, 문학동네, 2017, 1~200쪽.
- 이상일, 「문학교육 제재로서 〈방한림전〉의 가치와 한계-젠더 일탈과 동성혼 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45~77쪽.
-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35~64쪽.
- 이유리,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 연구」, 『한국문학논총』 175, 한국문학회, 2017, 93~131쪽.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113~246쪽.
- 이종필, 「포스트 휴먼 담론을 통해 본 〈방한림전〉의 상상력」, 『우리문학연구』 66, 우리문학회, 2020, 103~127쪽.
- 이지하, 「육망주체로서의 방관주와 자기애의 미덕-〈방한림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모색」, 『국제어문』 182, 국제어문학회, 2019, 219~243쪽.
-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a, 253~277쪽.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b, 301~338쪽.
- 정병현,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他者)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373~399쪽.
-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쪽.
-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 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13~169쪽.
- 차용구, 「서양 중세의 남장여성(男裝女性)-Hildegund von Schöau의 역사성 재검토-」, 『역사학연구』 37, 호남사학회, 2009, 137~163쪽.
-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姓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부장양문록〉·〈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

회, 2020, 29~57쪽.

최창모, 「남녀 의복 교환착용 금기 (신명기 22:5)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1, 한국중동학회, 2000, 251~263쪽.

허순우, 「고전소설 〈방한림전〉의 교육적 함의」,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163~196쪽.

Bollough, Vern L., "Transvestites in the Middle 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9, 1974, pp.1381-1394.

Dekker, R.,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in early modern Europe*, St. Martin's Press, 1989, pp.1-128.

J. Anson, "The Female Transvestite in Early Monasticism: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Motif," *Viator*, Vol.5, 1974, pp.1-32.

#### 인터넷 검색

〈아프간의 딸들, 아들로 살아가는 이유〉, 『세계는 지금』, KBS, 2012.07.14.-  
인터넷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ctnXyPh6fk>, 검색어:  
아프가니스탄, 검색일시: 2021.10.08. 17:37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of Gender Issues in  
*Banghanlim-je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Making Men”

Cho, Hong-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anggwanjoo's transvestism in *Banghanlim-jeon* as “man-making” by external influences, and to investigate the gender issues implied by her narrative. In the beginning, Banggwanjoo observed that she expressed her male gender identity in response to her parents' subtle desire for her to be a man. After losing her parents, her gender identity became fossilized, leading to her immersion in her ideal life as a man. The reason Banggwanjoo wore men's clothes and devoted herself to the revival of the family, was to create a perfect man's narrative. At first glance, her life appeared successful; however, her inner self was filled with tension, anxiety, and pain. She was unable to become a perfect man or woman because of her dual identity: her gender identity as a male, and her natural female body, which she did not choose. Such a figuration of Banggwanjoo is not only meaningful in her own space-time, but embodies a tragedy of human life, that occur at any time and place where oppressive gender norms are excessively applied.

**Key Words** Banghanlim-jeon, transvesting, gender, identity, oppression

---

\* Istanbul University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	